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9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9**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19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601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김기석
편집인 이차권, 차영준, 한소연

© 2019 Educators Without Borders
All rights reserved.

목 차

| | |
|-----------------------------------|----|
| I. 연간보고서 발간사 | 4 |
| II. 활동보고 | 5 |
| 1. 부르키나파소 나눔과 꿈 MARCA 사업 | 5 |
| 2. 케냐 EWB-KOA AFRICA 양돈 사업 | 18 |
| III. EWB 소식 | 30 |
| 1.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2주년 기념식 개최 | 31 |
| 2. 일가 가나안 회관 준공 | 32 |
| IV. 2019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33 |
|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 35 |
| VI. 2019년 후원자 명단 | 36 |

I. 연간보고서 발간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ducators Without Borders)는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EWB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이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리고 삶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케냐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07년 설립 당시 다음의 5개의 사명을 이루고자 다짐했습니다.

1. 한국교육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아우르는 교육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2.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연구소, 학교, 작은 공동체 등과 연대하여 전 세계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 자라나는 세대들을 국경없는 청년교육가로 양성하고, 시민들의 교육협력의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개발을 통한 전 세계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교육협력 공동체를 실현한다.
4. 아직도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전 세계의 비문해 성인들에게 문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 높은 비형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질, 정신적 조력자가 된다.
5. 세계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협력과 지원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지난 12년간 교육권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였고, 전 세계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청년교육가 캠프, 교원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르키나파소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주한 부르키나파소 명예영사로 임명되고, 유네스코 세종문해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노력을 인정받은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사명과 활동에 공감해 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후원자 분들과 사무국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II. 활동보고

1. 부르키나파소 나눔과 꿈 MARCA 사업

가. 단원성명: 김은아

나. 파견지역: 부세/ 보보/ 레오 지역

다. 활동 내용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르키나파소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찾았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말리, 니제르, 토고, 가나 등 여러 이웃나라 사이의 내륙국가로서 바다는 물론 강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이며, 일 년 동안 6~9월에만 비가 오며 나머지 기간은 메마른 건기가 지속되는 곳이다. 한 낮의 기온이 40도는 기본이며 50도까지 웃도는 날씨에 하마탄까지 불어닥치는 몹시도 건조하고 뜨거운 그곳은 지하드 테러공격으로 지금도 북동쪽은 총기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곳에 한국인들이 찾아간 목적은 현지 농가인들에게 한국의 양계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그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지도1] 서아프리카에 위치하는 부르키나 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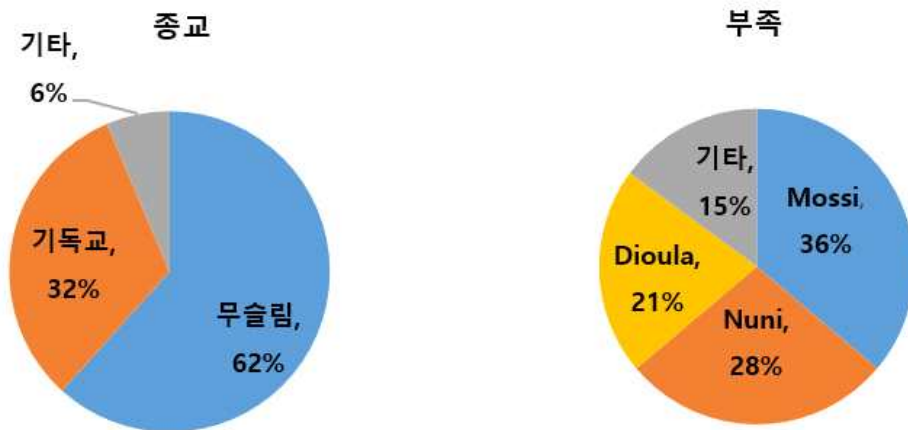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나눔의 열매 후원사업 공모에 당선된 국경없는교육가회(EWB)의 '교육을 통한 여성 농가인 수익창출 및 역량강화 사업(MARCA)'이 있었고, 그 사업에 참여한 일가재단의 유동휘 박사 등 한국의 전문가가 찾아갔으며, 현지 NGO인 협력기관(APENF)의 도움과 무엇보다 이 사업의 주인공인 부르키나 파소 47가구의 농가인이 있다.



[사진1] 양계활동을 하고 있는 15가구가 있는 부세 지역의 마을 풍경

47가구의 주인공들은 EWB에서 10년 전부터 진행해왔던 문해교육사업의 우수 수혜자들 중에서 저소득층이지만 주로 여성 농가인으로 선발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세 15가구, 보보와 레오 지역에 각각 16가구씩 분포되어 있다.

47가구의 종교와 부족을 살펴보면 부르키나 파소의 전체 비율과 유사하게 무슬림인이 62%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 부세 지역은 모시족, 보보 지역은 줄라족, 그리고 레오 지역은 누니족으로 주로 이루어져있다. 부족이 다른 만큼 각 지역마다 다른 지방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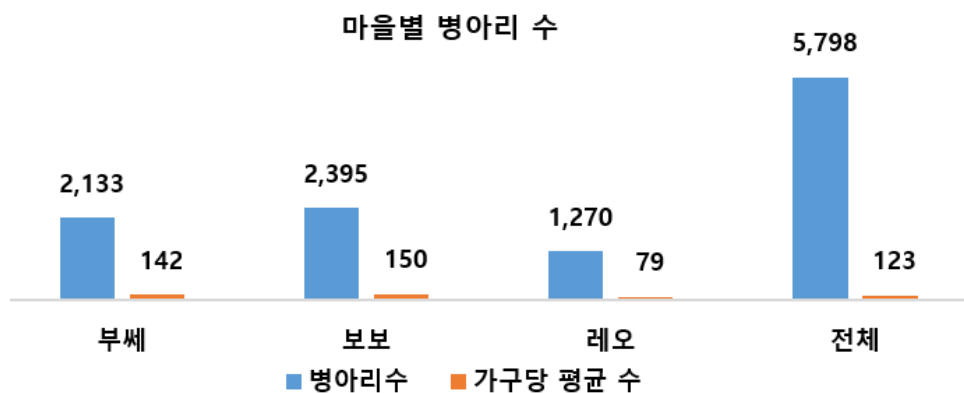


지역마다 언어도 다른 이들에게 한국의 양계기술이 과연 어떻게 전수되었을까? 그 과정은 언어가 우선 4단계(한국어->영어->불어->지방어)를 거쳐야 하며, 한국의 전문가가 먼저 세 명의 현지 양계기술강사에게 강의하고 그들이 다시 각 지역에서 현지 수준에 맞게 전수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전문가는 일가재단 유동휘 박사를 포함 총 두 명이 참가하였으며 강의 내용으로는 방역, 백신, 부화기술, 사료제조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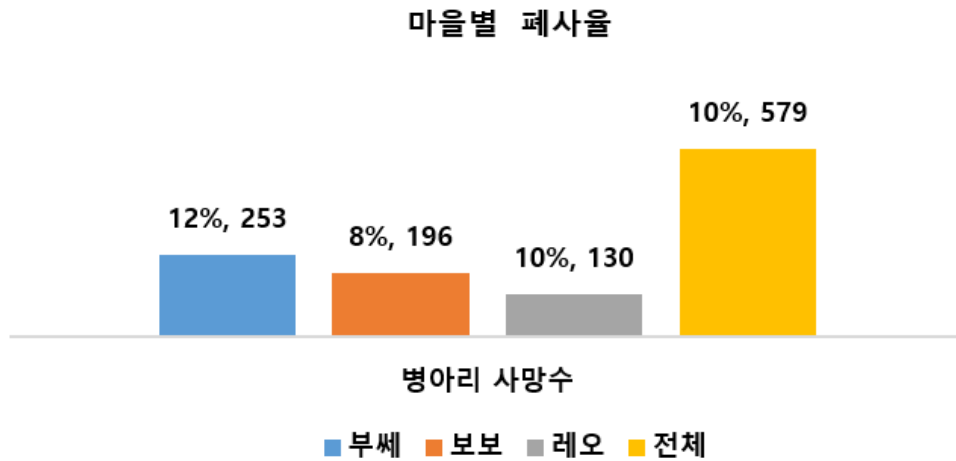


[사진2] 현지 양계기술강사들에게 사료제조법을 전수하고 있는 일가재단의 유동휘 박사

이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양계교육을 전수받은 그들의 성과를 수치로 보면, 마을별 병아리 수는 보보 지역이 약 2천4백수로 가장 많다. 가구당 평균은 150마리다. 반면 레오 지역이 천마리 조금 넘는 수로 가장 저조하며 가구당 평균 수도 79마리로 한 회기당 100수 가정할 경우 1회기도 못한 결과이다. 전체 병아리 수는 약 5천8백수이며 가구당 평균은 123마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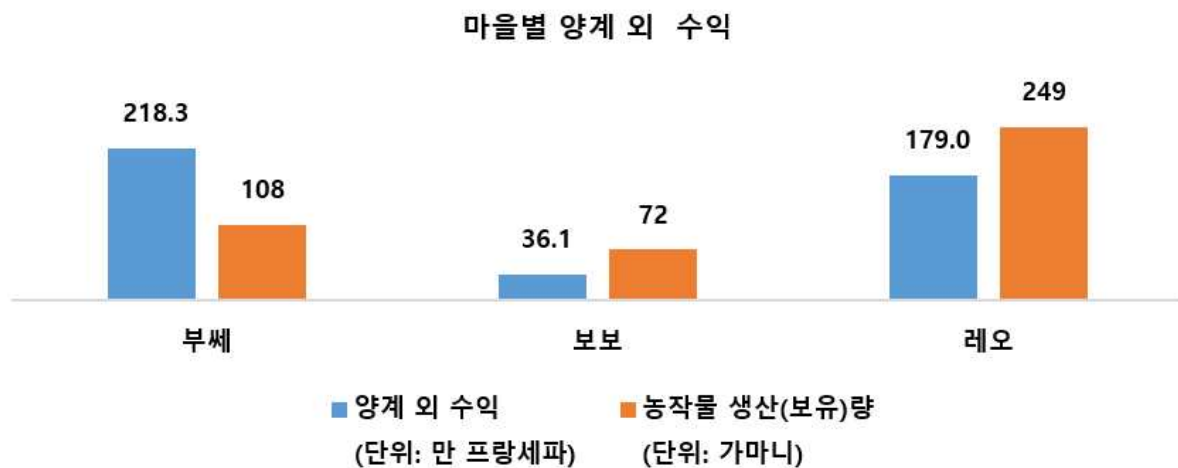
폐사율은 부세 지역이 12%로 가장 높으며 보보 지역이 8%로 가장 낮다. 전체 폐사율은 10%로 2017년 처음 양계를 시작했을 당시 23%를 넘었던 수치가 방역, 백신 등의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이 쌓여서 목표치만큼 줄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익을 보면 병아리 수가 가장 많고 폐사율이 가장 낮은 보보 지역이 약 215만 프랑세파(한화 약 430만원)의 성과를 거뒀으며 가구당 평균 수익은 15만 프랑세파(한화 약 31만원)가 넘는다. 반면 레오 지역은 총 수익이 735천 프랑세파(한화 약 147만원)로 가장 저조하며 가구당 46천 프랑세파(약 9만원)가 안되는 금액이다. 참고로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0.7(2017년 기준)이다.



단순히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보보 지역이 가장 열심히 하여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그와 반대로 레오 지역은 열심히 하지 않아 가장 낮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레오 지역은 다른 두 지역처럼 45일 또는 3개월만 키우면 되는 개량종 대신 6개월 정도 키워야 판매가 가능한 토종닭으로 양계활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장에서는 토종닭을 선호하고 개량종을 잘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레오 지역은 양계보다는 농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근거로 경작물 수익을 살펴보면 레오 지역이 다른 두 곳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양계만 따졌을 경우는 레오 지역이 형편없지만 사실 그들은 농사철이 끝난 후 한가한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보내지 않고 양계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양계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쳤을 경우는 세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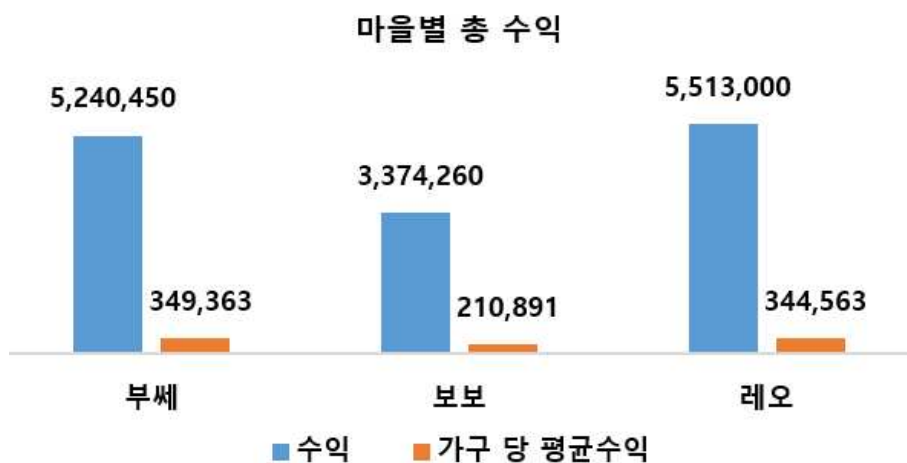
[사진3] 양계기술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마담 상가레(왼쪽)

반면에 양계수익이 가장 높은 보보 지역은 대부분이 양계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9년 한 해 동안 총 7회기를 한 놀라운 양계인이 탄생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마담 상가레 사라타이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적극적으로 양계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그녀의 성공비결은 MARCA사업에서 제공하는 양계기술교육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배운대로 방역, 백신, 사료제조법 등을 바로 적용시켜 폐사율과 지출비용을 낮추게 한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한 해 수익을 1인당 국민소득(\$670.7)만큼 올리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인정받아 '양계박사'로 불리고 있다.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을 당시만 해도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었지만 지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녀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학교도 보낼 수 있으며 끼니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양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 양계기술 강사로 거듭나고 싶은 포부도 밝혔다.



[사진4] 직접 개량종을 기르고 있는 계사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세니 씨

마담 상가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낸 양계인이 있는데 바로 부세 지역의 위에드라오고 세니 씨다. 그는 직접 유정란을 생산하고 부화기로 병아리를 부화시켜 지출비용을 대폭 줄였다. 그는 비록 30세의 젊은 미혼 남성이지만 MARCA사업을 접하기 전에는 집안의 농사일을 돕는 수준으로 수익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한 해 동안 1인당 국민소득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누구보다 양계에 열중하고 있다. 앞으로 계사를 더 늘려서 회기 당 1,000수 이상 키울 수 있는 양계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



사실, 양계교육을 진행할 당시에만 해도 문화나 환경 그리고 언어가 다르니 이들에게 제대로 전수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설사 제대로 전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앞섰다. 왜냐하면 기술에 따른 장비가 필요할 때가 많으며 농가인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했다. 예를 들면, 사료제조법을 알더라도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쇄기와 배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계가 제공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맨손으로 직접 재료를 빻아서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면 지출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뜨겁고 건조한 날씨의 열악한 환경조건에 최근에는 테러사건까지 빈번하여 점점 세계에서 소외되어가고 있는 나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한국 전문가들의 용기와 봉사정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의 맨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진5] 손으로 만든 사료가 품질이 더 우수하다며 보여주고 있는 부세 지역의 양계인

라. 삼성 나눔과 꿈 사업 평가

EWB는 2019년 삼성 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나눔과 꿈 지원 사업을 통해 부르키나파소 양계 협동조합 사업을 진행하였다. 부르키나파소 양계 농가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는 물론 다양한 좋은 사례들을 내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EWB는 2019년 나눔과 꿈 정기 평가에서 사업평가 A등급, 회계평가 A등급을 받게 되었다.

사업평가

2019

| 수행년도 | 사업구분 | 사업명 | 사업수행기간 | 담당자 | 수행시작일 | 수행종료일 | 사업평가등급 | 회계평가등급 |
|------|------|------------------------|-------------------------|-----|------------|------------|--------|--------|
| 2019 | 기획사업 | 2019년 기획사업 나눔과꿈 '꿈-장기' | 2019-01-01 ~ 2019-12-31 | 차영준 | 2019-01-01 | 2019-12-31 | A | A |

마. 삼성 나눔과 꿈 우수 사례 선정

부르키나파소 양계 협동조합 사업이 2019년 나눔과 꿈 지원 사업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2020년 나눔과 꿈 지원 사례집에도 부르키나파소의 사례가 해외 유일한 우수 사례로 실리게 되었다.

부르키나파소 농가 역량강화·소득증대 사업

양계협동조합 프로젝트

C-SDGs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농민을 대상으로 양계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여 양계역량을 강화시키고 소득증대를 창출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장기사업으로 전환하여 양계 교육·소득증대, 더 나아가 양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지속·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교육사회

국경없는교육사회는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빈곤퇴치를 위해 교육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www.ewb.or.kr

2017

단기 / 꿈



양계협동조합 조합원

기획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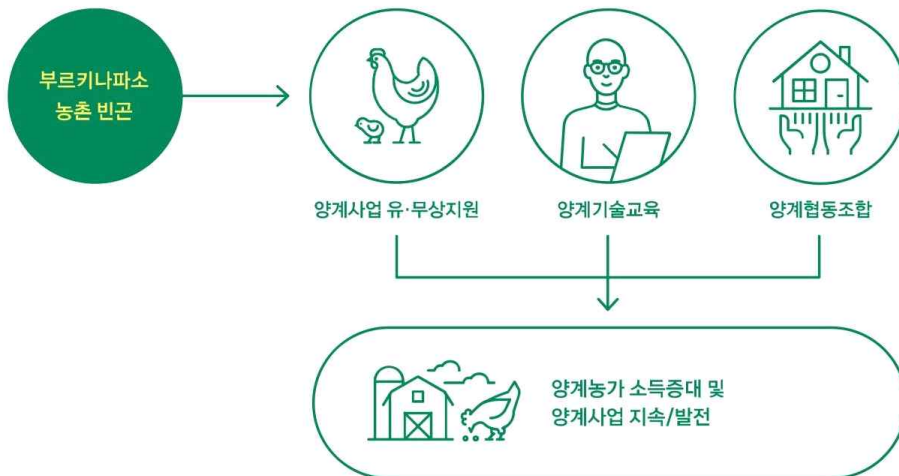
① 부르키나파소의 농촌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 ❶ 가축 사육기간이 짧고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양계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자.
- ❷ 양계사업 시 무상지원(초기 시설·기기)과 소액대출 형태의 유상지원(병아리·사료)을 결합하여 농촌주민들이 활동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자.

② 양계사업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❶ 현지 상황에 적합한 양계기술 교육을 통해 생산비·병아리 폐사율을 감소시켜 소득을 높이고, 더 나아가 농민들을 양계전문가로 양성시키자.
- ❷ 양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 생산·판매를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협력 구조를 만들자.

사업체계



사업내용

| | |
|-----------|--|
| 양계활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계 계사 등 초기 설비 무상지원 및 병아리·사료비용 소액 대출 지원 • 참여 주민의 양계 적정 기술(방역, 사료제조, 부화기 사용법 등) 교육 및 양계기술강사 양성 • 양계 전문가·수의사 동반하여 현장 모니터링 진행 • 선진 계사 현장방문 및 지역별 우수양계인 선발 |
| 양계협동조합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계협동조합 설립 및 모니터링·정기회의·협의회를 통한 조합 운영 • 신규 양계협동조합의 조합원 선발 및 지원 |

부르키나파소 농가 역량강화·소득증대 사업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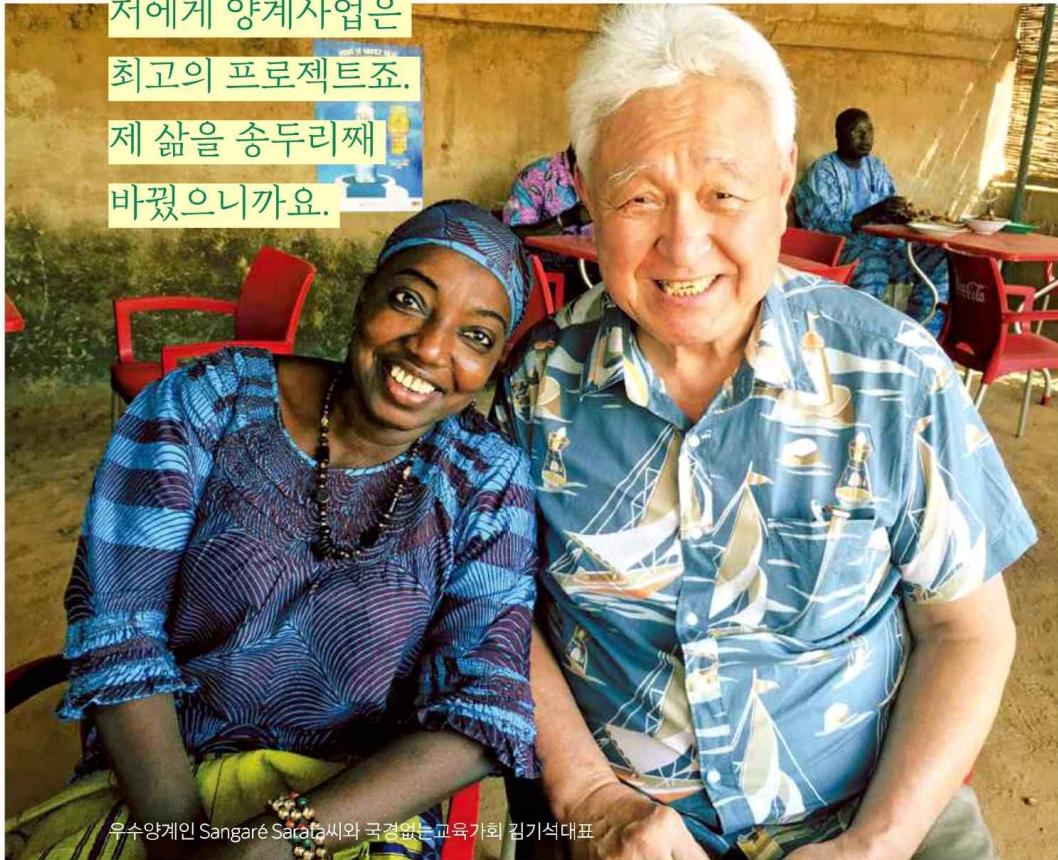
부르키나파소 농민의 양계 역량을 강화시켜 출하율·순수익 증대 및 폐사율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양계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양계 공동생산-판매 구조 정착과 안정성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 | | |
|------------------|--------------------|-------------------|
| 양계활동가구 | 출하율 | 양계기술교육 |
| 47 ^{가구} | 100% ^{달성} | 95% ^{만족} |

양계협동조합 설립·운영

INTERVIEW

저에게 양계사업은
최고의 프로젝트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으니까요.



우수양계인 Sangaré Sarafa씨와 국경없는 교육가회 김기석대표

부르키나파소에서 ‘닭’은 결혼식·세례식에 활용되며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많은 농민이 양계사업에 도전했지만, 환경이 열악하여 어렵게 키운 닭은 쉽게 폐사했다. 2017년부터 나눔과꿈은 부르키나파소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반 환경을 개선하고 양계기술교육을 지원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양계활동 7회기를 배출한 양계인이 탄생했다. 부르키나파소 요로코코에 거주하는 Sangaré Sarata다.

질문. 2019년에 사료배합법, 태양열 부화기 사용법 등 양계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Sangaré Sarata 맞아요. 부르키나파소에 한국 양계전문가가 와서 새로운 사료배합 방법을 알려줬는데 부르키나파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 목화씨, 대두 등이라 손쉽게 사료 제작이 가능해졌어요. 덕분에 양계사료 구매 비용이 줄어들어 많은 도움이 되었죠. 또 작년 8월에는 태양열 부화기를 설치했는데 420알 중 총 361마리가 부화했어요. 병아리 생산성도 많이 증가했어요.

질문. Sangaré Sarata에게 본 사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Sangaré Sarata 저에게 양계사업은 최고의 프로젝트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으니까요.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소득이 불규칙하다보니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교육비를 낼 수 있을까?” 혹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등 남편 없이 세 아이를 양육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양계사업을 하며 정기적인 수입원을 만들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립했어요. 소액대출금은 이전에 납부 완료했고, 심지어 적금 통장도 만든걸요!(웃음) 이제는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언제든지 지출 할 수 있고, 학비, 병원비, 약 구입비를 낼 수 있어요. 가난과 싸워서 이겨 낸 것이죠.

우수양계인 Sangaré Sarata씨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나눔과꿈 홈페이지(www.sharinganddream.org)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케냐 EWB-KOA AFRICA양돈 사업

가. 단원성명: 박춘식

나. 파견지역: 사가나 지역

다. 활동 내용

나이로비와 사가나는 건기와 우기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대체로 덥지 않은 날씨(한국의 선선한 봄.가을 정도)에 햇볕은 따갑지만 연중 일교차(10도 내외)가 심해서 아침에는 긴팔, 오후에는 반팔, 저녁에는 바람막이를 입어야 하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 기온의 변화가 있으며, 1~3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최고 30도내외), 7~8월의 기온이 가장 낮음(최저10도내외)시기임. 온도가 높은 날도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덥지는 않고 햇볕에 나가면 따갑고 그늘 아래에 있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우기는 1년에 두 번으로 통상 3월말부터 6월초까지의 대 우기와 10월말부터 12월까지의 소우기로 구분되며 사가나의 농민들 대부분은 이 두 번의 우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비는 통상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새벽 동이 트기 전에는 거의 그친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대우기는 30일 정도 늦게(4월 하순부터) 시작 되었고 비는 얼마오지 않았으나 후반기의 소우기는 한 달 정도 이른 9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홍수를 유발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1월에도 계속적인 비가 내렸다. 대우기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장 지역의 주간날씨는 우리가 일을 하기에 좋은 날씨였다고 생각하나 소우기 기간에는 우리의 사업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양돈농가와 케냐 현지의 양돈농가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 계획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졌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을 참고하여 현지 농가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계획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현지 자재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 환경보존 가능한 돈사 만들기와 양질의 사료 제조방법(발효사료/일반 배합사료)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친환경 자연농법을 이용한 양돈 기술 전수하였다.

■ 활동사진

시범농가 돈사(2실) 만들기(04.26~05.07)



시범농가 방목장 완성
(웬스철조망 설치) 후 외부전경(2019.06.22.)



시범농가에 분양한 돼지의
분만전후 지도 (2020.1.22/25)



시범농가 돈사 완료 후 돼지분양(05.22)



시범농가 돈사 확장공사
(2실을 4실로, 12.중순~01.초)



교육장 친환경돈사 증설 5실(08.28~09.12)



교육장 돼지의 분만 시
난산 조치하고 있는 본인(09.16)



교육장 친환경돈사
추가증설 완료 후 외부(2019.11월)



교육장 친환경돈사
추가증설 완료 후 내부(2019.11월)



관심농가와 돈사신축 토의(2019.12월)
(2020년 2월 신축예정)



너는 나의 친구!

(Wewe ni rafiki wangu!)

국경없는 교육가회 박 춘식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나는 2년 전에 많은 기대와 부풀은 마음과 긴장된 몸으로 낯선 케냐의 사업장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지원한 내가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지에 익숙해지고 현지의 주민들과 친숙해지고 현지의 어린이들은 나를 너무나 좋아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파견지에 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흙먼지 투성이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재미있게 뛰어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렸을 때(1960년대 초)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 지금 그 어린이들은 100m앞에서도 나를 알아보고 나를 보면 나를 향해 뛰어와서 내가 안아주기를 바란다. 얼굴색이 달라서 처음에 내가 가까이 가면 울던 어린이들 까지도...

이 마을의 어린이들은 처음에 나를 보면 도망을 갔고 내가 더욱 가까이 쫓아가면 울면서 도망을 갔던 아이들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보면 "미스터 박"이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달려온다. 그리고 내가 안아주면서 "너는 나의 친구(wewe ni rafiki wangu)"라고 말 하면 제일 좋아한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생, 어른들 모두가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케냐에서는 이 말을 즐겨서 사용 한다.

나의 사가나 숙소로부터 사업장까지는 약 500m가 되며 나는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평일에 동네 어린이들은 일찍 학교에 가기 때문에 오고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은 주로 2~4세의 아주 어린 아이들과 동네 주민 일부 그리고 토요일과 휴일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까지 만날 수가 있다. 사업장 주변은 시골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물론 나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나보다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통상적인 인사말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다. 그러나 주말에 학생들을 만나면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했다.

나는 출퇴근 하면서 거의 매일 만나는 주민과의 대화를 일상적인 '안녕하세요'라는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몇 개월을 지냈다. 처음에는 영어로 몇 달 후에는 스와힐리어로... 그리고 주민과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직원을 대동하여 통역을 시키면서 생활을 하였다

나는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KCOC에서 교육기간 중에 배운 스와힐리어 교재를 가끔 보았고, 현지의 스와힐리어 강사를 통하여 스와힐리어를 배우기는 했으나 평상시에 영어 위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얼마 되지 않아 잊어버리고 또한 스와힐리어를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겨우 스와힐리어로 인사말을 할 수 있을 뿐 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스와힐리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에게 부탁하여 대학생의 방학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가져온 '핑 먹고 알 먹는 스와힐리어 첫걸음'과 'The 바른 스와힐리어' 책 두 권을 한국말은 나의 목소리로 스와힐리어는 현지 대학생의 목소리로 내가 공부하기 쉽게 녹음을 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녹음한 교재를 이용하여 매일 1~2시간씩 약 6개월 동안 현지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왔으며 지금은 떠들거리면서 주민과 일부 대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와힐리어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와 섞어서 말을 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내가 스와힐리어로 말을 걸으면 현지인들은 무척 반기면서 잘못된 스와힐리어 문장을 바로 잡아주기도 한다. 나는 스와힐리어를 공부하면서 현지인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과 더욱 친숙해질 수가 있었다.

지금은 동네 어린이들이 나에게 말하는 현지어를 대충은 이해를 한다. 내가 마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린이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사탕을 달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이 잘 하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 같이 놀자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운전기사와 차를 타고 사업장에 가면 차를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외에도 동네 어린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를 볼 때마다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한다. 공, 신발, 책가방, 연필, 색연필 등등 그 동안 내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는 말들이다.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와힐리어 교재



사업장에서 교재를 녹음하고 있는
나와 현지의 대학생

내가 스와힐리어를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동네 어린이들이 나에게 무어라고 말하는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스와힐리어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조금씩 어린이들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고 주민들에게도 “안녕하세요?”라는 말 이외에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어떤 어린이에게 무의식중에 “너는 나의 친구(Wewe ni rafiki wangu)”라고 스와힐리어로 말을 했더니 그 어린이가 너무나 좋아했고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입가에 계속 미소를 띠우고 다른 어린이들에게 보란 듯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보기가 좋았다. 그 뒤부터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와힐리어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 후에 나는 집을 나설 때 마다 한쪽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넣고 다녔다. 그리고 만나는 어린이들 마다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현지어로 어린이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너는 나의 친구(Wewe ni rafiki wangu)”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동네의 20여명의 어린이들 이름을 모두 알게 되었고 항상 어린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중에 동네 어린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Wewe si rafiki wangu)”라는 말이다. 내가 어린이에게 이 말을 할 때는 그 어린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이다. 그래서 그 말을 더 싫어하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다시 이야기 하면 바로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는 아이들이다.

여기의 어린이들은 공놀이를 자주 한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차는 것은 공이 아니고 헨 옷이나 천, 마대, 비닐 등을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만든 후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만든 것이다. 나는 그런 것으로 공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은 여기서 처음 보았다. 얼마나 공놀이를 하고 싶었으면 저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곤 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공을 발로 한번 차보았다. 공의 흉내는 낸다. 어린이들이 공 대신 그것으로 즐길 만도하다.

어느 날 나는 나이로비에서 축구공 한 개를 사서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갖다 주면서 공 때문에 싸우지 말고 잘 놀 것을 이야기 해주고 축구공의 책임자도 지정 해주었다. 어린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동네의 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든다. 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공을 어린이들에게 사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어린이들의 학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날부터 마을의 어린이들은 매일 오후에 학교에서 귀가 하면 그 공으로 축구를 하면서 놀았고 나는 지나는 길에 가끔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현지의 어린이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공



축구공을 선물한 후 마을의 어린이들과 함께

공을 사준 얼마 후에 나는 케냐에 놀러온 조카를 데리고 사업장에 가서 동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을의 입구에 있는 잔디밭에서 축구를 시켰다. 모두가 좋아한다. 현지의 어린이들과 거의 또래인 조카를 더욱 좋아한다. 그리고 서로 친구하자고 야단이다. 축구가 끝난 뒤에 나는 동네 어린이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음료수와 빵 등을 제공하였다. 그 후부터 나는 가끔 동네 어린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나의 조카가 함께한 동네 어린이들의 축구 경기



축구경기가 끝난 후 기념 촬영

나는 휴일 날 혼자 무료할 때는 가끔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 어린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면서 지냈다. 어느 날 나는 마을에서 3개월 이상 보지 못한 겨우 발걸음을 떼는 어린이를 오래간만에 보았다. 그 어린이는 엄마의 등에 얹여있었는데 내가 그 어린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나를 보고 방긋이 웃는다. 그리고 "하이 미스터 박"이라고 정확하고 또박또박 나를 부른다. 나는 그의 엄마에게 어린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년8개월 이라고 한다. 나도 놀랐고 주변에 같이 있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내가 그 어린이에게 지금까지 해준 것은 가끔 사탕을 하나씩 준 것 이외에는 없는데 3개월 이상 보지 못한 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유명인이 된 기분 이었다.

또한 동네 어린이들은 자전거 타이어나 오토바이 타이어를 가지고 굴리는 놀이를 즐긴다. 한국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굴렁쇠를 가지고 놀았는데 여기의 어린이들은 굴렁쇠 대신 타이어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나는 동네의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타이어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경주를 시켜보았다. 어린이 들이 아주 잘 굴린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굴렁쇠 대신 자전거와 오토바이 타이어를...



어린이들의 타이어 굴리기 경주

그리고 동네 어린이들은 내가 사진을 찍는 다든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어린이들에게 사진을 찍는 다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모습을 다한다. 그래서 나도 동네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 더욱 즐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면 그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노트북에 옮기고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상기하면서 당일 찍은 사진을 몇 번씩 다시 보기도 한다.



사진을 찍을 때 동네의 어린이들이 취한 자세 1



사진을 찍을 때 동네의 어린이들이 취한 자세 2

어느 날 나는 마을에서 돼지가 좋아하는 풀을 손으로 뜯고 있었다. 동네 어린이들이 "미스터 박 이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돕기 시작했고 나는 순식간에 내가 필요한 양을 채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은 염소나 양 등을 잡으면 꼭 나를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한다. 이들의 마음 씩씩이가 고마워서 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챙겨서 도와주었다.

건조기에는 사업장을 개방하여 풀을 베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헌옷을 수집해서 수시로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연필과 색연필 그리고 노트 등을 구입해서 전 가정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선물에는 항상 “Wewe ni rafiki wangu (너는 나의 친구)”라고 적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한 집에서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났다. 나는 출근길에 그 집에 들러서 오늘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딸의 결혼 전에 신랑 측으로부터 가축 또는 돈 등을 받는 다우어리(dowry)행사를 오후에 한다고 했다. 나는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중식 후에 그 집의 행사에 참석을 했다. 행사장은 큰 나무아래에 그늘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았으며, 약 60~70여명이 그 행사장에 있었는데 그들은 주인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 그리고 친인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접시에 먹을 것을 수북이 가지고 와서 먹어보라고 권한다. 이전에 온 사람들은 이미 중식을 그 집에서 마친 상태이며 늦게 오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남겨 놓은 것을 가져온 것이다. 나는 점심식사를 했다고 이야기 하고 차만 한잔 마시고 앉아서 열심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오면서 행사가 멈추어진 느낌이 들었다. 나에게 앞으로 나와서 나의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가서 스와힐리어로 인사말을 하고 나의 이름과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 한 후 만나서 반갑다는 것과 마지막에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Nyinyi ni marafiki wangu)”이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모두가 박수를 치고 큰소리로 웃는다. 그리고 내가 신기한 듯이 쳐다보면서 참석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행사 도중에 몇 명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 집의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길을 걷고 있으면 가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의 친구 미스터 박”이라고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로 말하면서 나를 불러 세워놓고 그 집 행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주인



춤을 추면서 행사를 즐기고 있는 현지인들

내가 나이로비에 있을 때는 매주 교회에 가지만 사가나 사업장에 있을 때는 주일 날 가끔 현지인 교회에 간다. 목사님의 설교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 교회에 앉아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끔 가는 것이다. 내가 사가나에서 가는 현지인 교회는 약 40여명의 신자들이 있으며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한다.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은 찬양을 하고 1시간은 설교를 듣고 1시간은 한명씩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설교는 스와힐리어도 아닌 종족어로 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내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한 것이다. 스와힐리어도 모르는데 어찌 종족언어까지... 그렇지만 기도 하고 싶을 때는 교회에 간다.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끔 쌀을 가지고 가서 그날 모두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줄 수 있도록 헌물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어떤 날은 3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찬양이 끝나고 설교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나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나와서 나의 소개를 해달라고 한다. 나는 앞으로 나갔고 다우어리 행사 때와 똑같이 스와힐리어로 내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은 나의 친구들(Nyinyi ni marafiki wangu)" 이라는 말도 잊지 않고 했다.

그들은 내가 스와힐리어로 나 자신을 소개 한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 날로 설교 후에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 까지 찬양과 율동을 한 시간 이상하고 내가 헌물한 쌀을 분배하고 끝났다. 그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고 그들은 나를 만나면 항상 나에게 "나의 친구 미스터 박"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걸어왔으며 그 때마다 나는 잘 통하지 않아도 그들과 반갑게 대화를 나누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중인 교인들



쌀을 분배하고 있는 교회의 집사들

나는 금년에 만 65세이다. 나의 봉사활동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된 기간이기도하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나는 봉사활동 기간을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즐겨보지 못했던 다른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시작했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지의 업무를 더욱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였다. 그리고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스와힐리어를 적극적으로 배워서 먼저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즐겨보자고 결심하고 매일 1~2시간씩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왔다. 물론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책을 읽고 녹음한 내용을 들어서는 머리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금 씩 조금 씩 진도는 나가고 있었으며 그런 생활가운데서 현지의 어린이들 및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관계로 점점 스와힐리어 공부에 즐거워졌고 지금은 눈을 뜨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스와힐리어 공부였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서툴고 더듬거리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숙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동네 어린이를 향해 무심코 내 뱉은 "너는 나의 친구(Wewe ni rafiki wangu)" 라는 말이 내가 스와힐리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때부터 나는 나의 사업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내가 스와힐리어가 능숙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의 생각처럼 내 주변의 모든 현지인들이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보기도 한다.

나는 스와힐리어를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아는 것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첫걸음이고 모든 활동의 기초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현지의 언어는 현지의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스와힐리어를 공부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일 년을 더 연기 하였다. 2020년에도 나는 이곳에서 우리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가나의 주민들과 함께 이들의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여기서 봉사활동을 할지는 나도 장담을 못한다. 나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무엇인가 확실히 이곳에 심어놓고 마무리를 한 뒤에 이곳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 늦은 나이에 새롭게 현지 언어에 적극적으로 도전한 나는 현지인들과 더 많은 대화 시간을 갖고 더 나은 사업현장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점점 익숙해가는 스와힐리어를 즐기고, 앞으로 남은 봉사활동 기간이 "나의 친구들(Marafiki wangu)"과 함께 나의 생애에 가장 즐겁고 보람이 있는 삶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Ⅲ. EWB 소식

1.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집행위원회 결성



▲ EWB 창립 12주년 기념식 참석자 단체 사진

2019년 6월 14일,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1층 체리홀에서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2주년 기념식과 집행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난 12년간 EWB를 위해 아낌없는 조연과 지지해준 EWB 이사진과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집행위원회 구성은 김기석 대표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부위원장으로 윤상우 위원이 선임되었다. 집행위원회 분과는 기획, 재정, 홍보, 사업 4개 분과로 조직하였으며, 정기모임은 연 4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일가 가나안회관(ICC) 준공

2018년 2월 일가 재단과 국경없는 교육가회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현지 시민단체인 APENF의 노력으로 착공한 일가 가나안 회관이 2019년 2월 12일 드디어 준공 되었다. 앞으로 농업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 부르키나파소 일가 가나안 회관

IV. 2019년 세입 세출 결산 보고

1. 2019년 결산 보고

단위: 원

| 2019년 수입 | 2019년 지출 | 당기수익 |
|-------------|-------------|-------------|
| 261,382,658 | 154,425,802 | 106,956,856 |

2. 2019년 수입 결산

단위: 원

| 과목 | | | | 비고 |
|------|------------------------|-------|-------------|----|
| 관 | 항 | 목 | 금액 | |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 26,442,842 | |
| 후원수입 | 정기후원금 | | 49,546,440 | |
| | 부정기후원금 | | 1,740,000 | |
| | 소계 | | 51,286,440 |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케냐사업 | 9,700,000 | |
| | | 나눔과 꿈 | 101,766,587 | |
| | | 청년인턴 | 17,325,000 | |
| | 소계 | | 128,791,587 | |
| 기타수입 | 인건비 (목적후원 및 일자리 안정 자금) | | 54,817,238 | |
| | 이자수입 | | 44,551 | |
| | 소계 | | 54,861,789 | |
| 합계 | | | 261,382,658 | |

3. 2019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 과목 | | | | 비고 |
|------|-------|--------|--------------------|-----------------|
| 관 | 항 | 목 | 금액 | |
| 협력사업 | 사업활동비 | 나눔과 꿈 | 96,759,714 | |
| | | 청년인턴 | 16,001,240 | |
| | 소계 | | 112,760,954 | |
| 경영기획 | 법인운영비 | 인건비 | 18,185,390 | |
| | | 사무국운영비 | 13,939,374 | |
| | | 세금 | 469,500 | 4대 보험 비 용 제외 |
| | | 기타잡비 | 9,070,584 | |
| | 소계 | | 41,664,848 | |
| 합계 | | | 154,425,802 | |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1. 후원계좌
농협) 079-01-468104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http://www.ewb.or.kr> / 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2019 년 후원자 명단

(만민교육 1,000만원 이상, 빈곤퇴치 100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0원 이상)

- **Honor Club**

윤희진(다비육종), 이현(우리교육 연구소)

- **만민교육 후원자**

노임환(엠디그린)

- **빈곤퇴치 후원자**

정인상, 김기석, 이병훈, 유동휘(올더베스트), 모선일, 김찬란,
일가커피후원, 김진환(학지사), 손영우, 이성실, 전성하

- **문맹퇴치**

김주훈, 이현정(밀양), 변현정, 이현정(용인), 송은미, 김성열, 김한울,
이재찬, 장한결, 차승주, 박길성, 안종실, 박용천, 영도교회, 김정연, 우신자,
이강현, 안욱진, 공유찬, 김성식, 김한주, 노정혜, 오명도, 박진숙, 변성범,
양병표, 정대홍, 정미란, 정진화, 조정아, 남장희, 김성희, 김윤관, 김혜순,
심정섭, 강완수, 문삼은, 박환보, 이영자, 최인수, 조난숙, 안상길, 고희은,
권기, 김동하, 김준엽, 김지자, 김충실, 김현숙, 남영선, 류방란, 박에스더,
배정현, 신선미, 양길석, 양은성, 여영기, 이광수, 이선우, 이윤복, 이은정,
이정숙, 이차권, 이향규, 이호준, 이한별, 전종갑, 정복희, 정운찬, 정해철,
조상식, 최덕환, 최채기, 허병부, 홍순원, 황복수, 김정기, 김태윤, 이다영,
이정아, 민선영, 남궁재환, 안유진, 정유정, 주현일, 현지숙, 이선정, 구정옥,
박용희, 김태석, 정화순, 최규민, 강선미, 고소향, 박준범, 김명진, 이호국,
이지현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